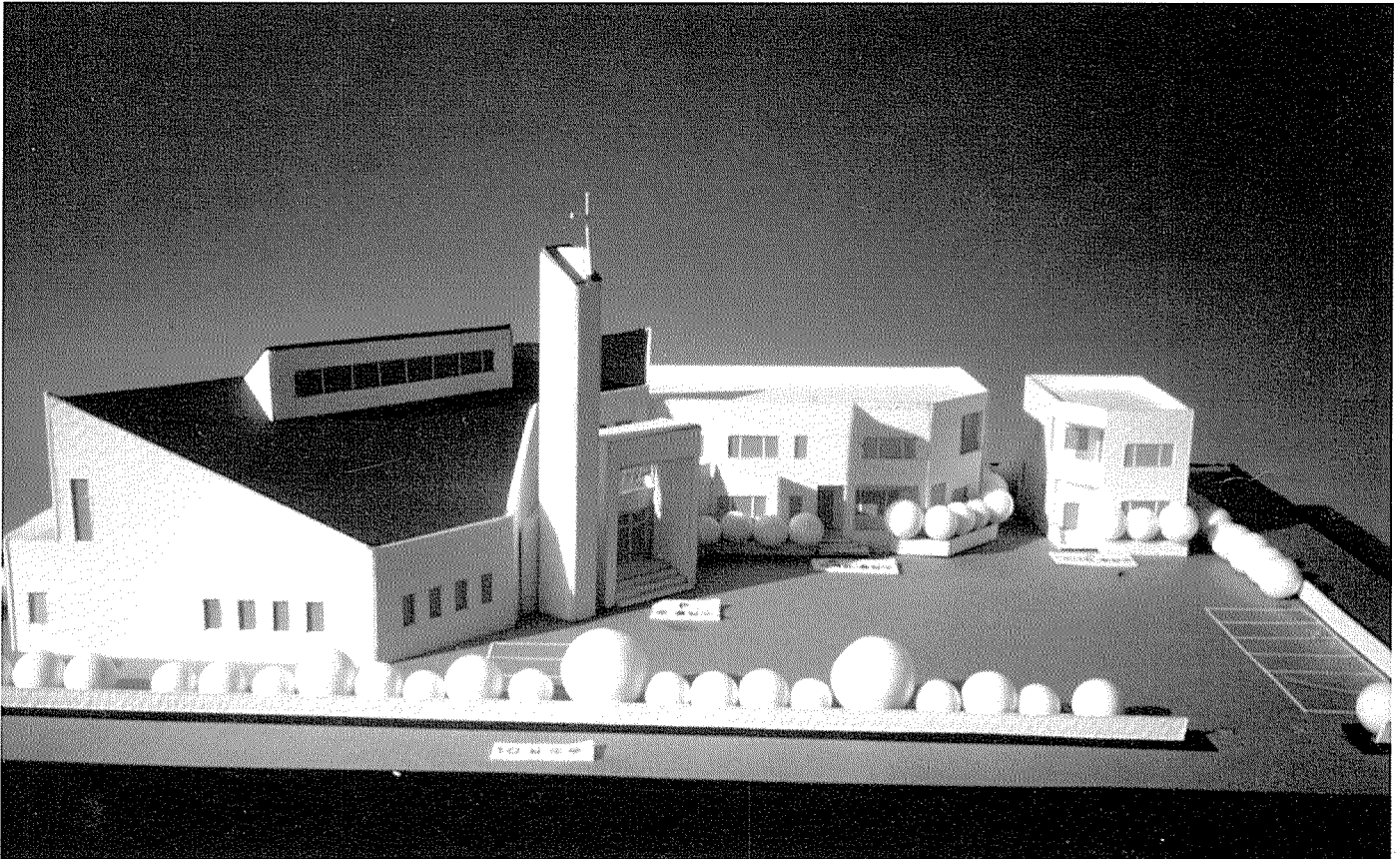


용상동교회

Yongsang-dong Catholic Church

朴在煥 /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건축
 Designed by Park, Chae-Hwan



모형도

위치 / 경북 안동시 용상동
 대지면적 / 약 785 평
 연면적 / 약 475 평
 구조 / 철근콘크리트조
 규모 / 지하1층, 지상2층
 주요시설 / 성당, 사제관, 수녀원
 설계 / 김종진, 김경희
 모델 / 강성규

Location / Yongsang-dong, Andong-shi,
 Kyeongsangbuk-do

Site Area / 2,590.5m²

Gross Floor Area / 1,567.5m²

Structure / Reinforced Concre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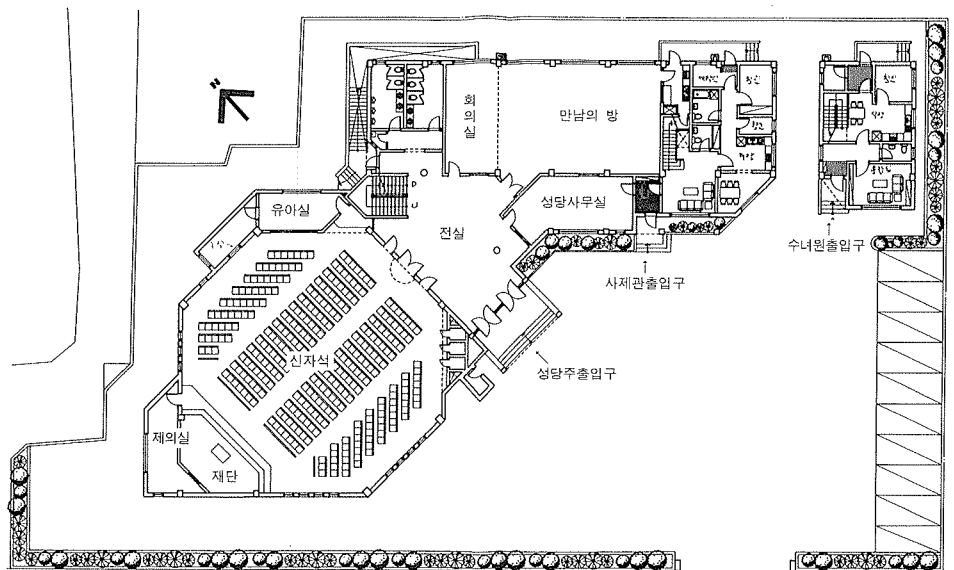
Bldg. Scale / 1 Story Below Ground

2 Stories Above Grou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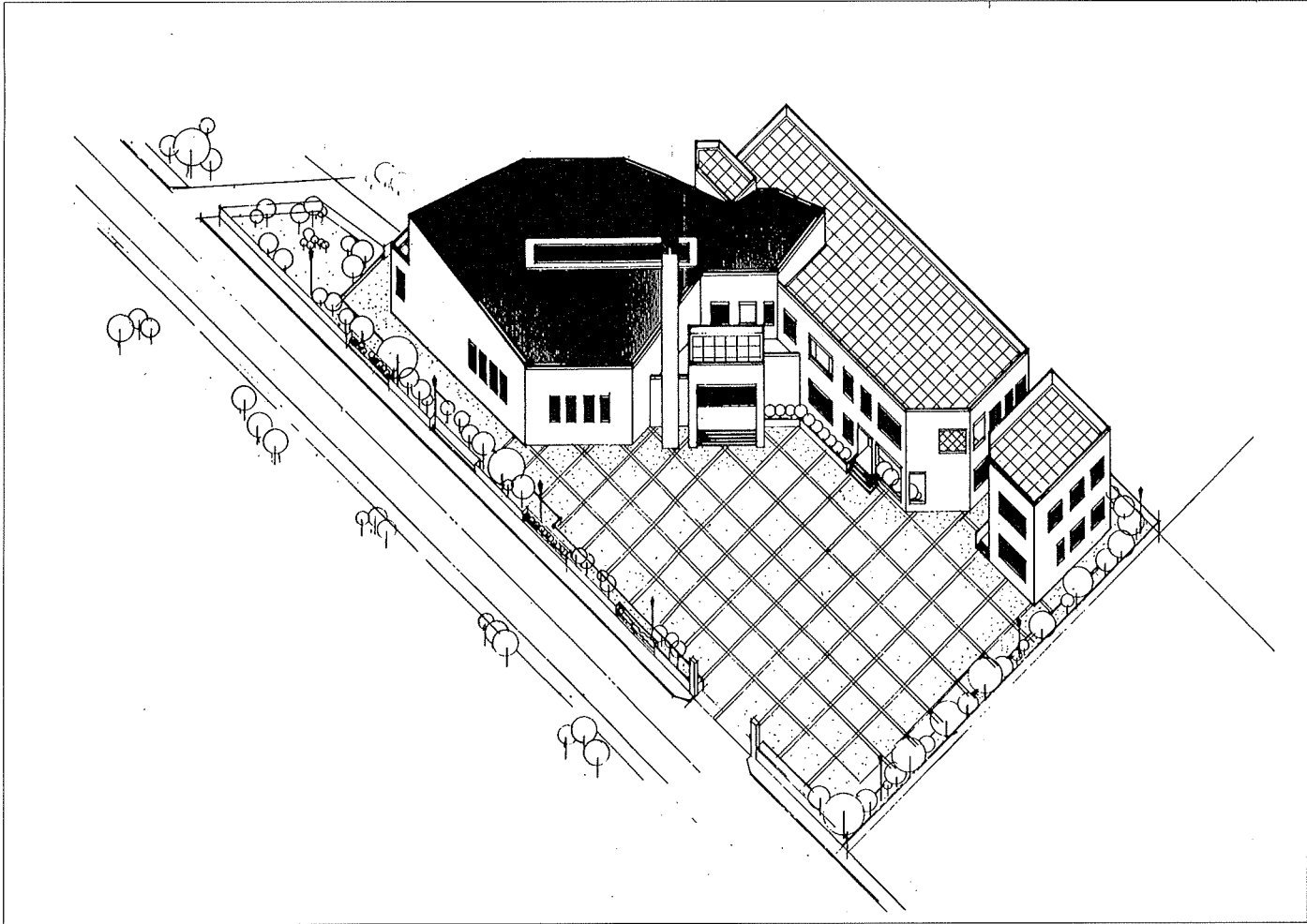
Main Facilities / Cathedral, Presbytery, Convent

Project Team / Kim, Chong-Jin, Kim, Kyeong-He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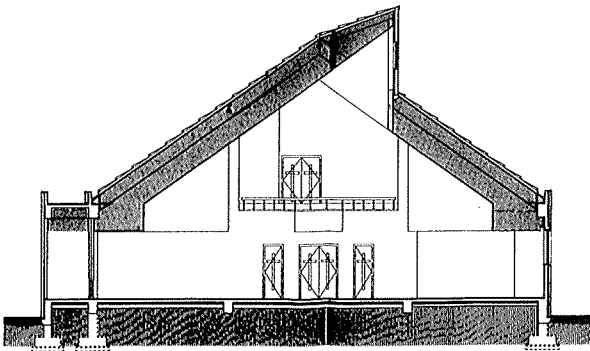
Model / Kang, Seong-kyu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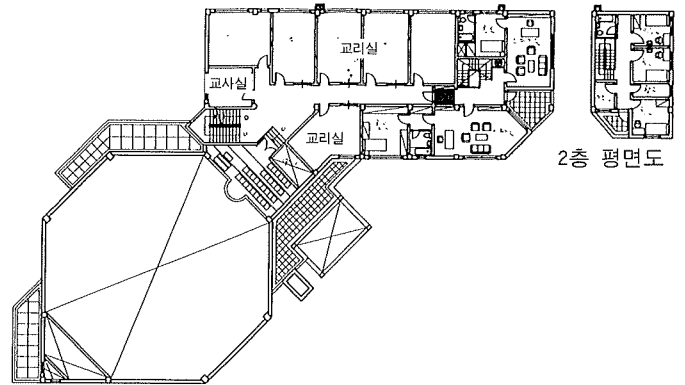
배치 및 1층 평면도



조감도



단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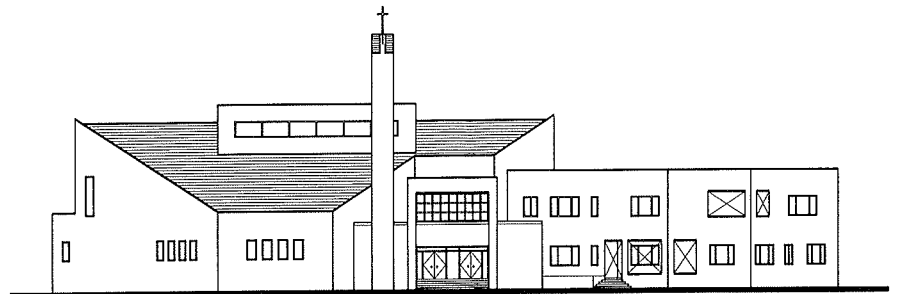


2층 평면도

최근 신축되고 있는 천주교회 건물들은 본당 마다의 신자수에 따른 수용인원 때문에 건물규모는 크고 적을 수가 있겠으나 대도시나 소도시 또는 지방의 성당을 불문하고 교회의 용도나 기능적인면에서 큰 차이점을 갖고있지 않다. 이것은 시대에 걸맞는 교회의 사명이나 역할이 성당건물의 외형적인 크기로 가능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다. 교구자체가 보수적이라고 할 수있는 안동시내 (용상동)에 위치한 이 성당은 신자수가 500여명이 채 못되는 교회로 신축규모는 적으면서 필요로 하는 용도는 다양하기에 지역성에 맞는 교회상을 구현하는데 충실하면서 제한된 예산범위안에서 신축되어야 하기에 건물배치에서 기본계획안이

확정되기까지 그 내용이 스터디 모델로 수차례에 걸쳐 보완되고 수정되었기에 설계기간도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. 금년가을이면 완공될 이 성당은 “보다 적은

것이 보다 풍부하다”는 건축물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에 군림하는 교회이기 보다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.



단면도